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메타천 구역

메타천 구역 이야기

메타천 구역에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오신 10가정 형제, 자매님들께서 계십니다. 구역모임이나 성당에서 봉사를 할 때 마다 모든 분들께서 늘 기쁘게 참여하시고, 항상 웃음이 넘쳐나는 구역입니다. 저희 구역분들 중 몇 분께 가톨릭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와 신앙생활을 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여쭙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나눔에서 그 분들의 인생, 신앙의 역사, 겸손하게 하느님을 믿고 감사드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눔을 해 주신 형제님과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금자 유리안나

70년도에 최헬레나 자매님을 통해서 오렌지 성당 통해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성당에 못 나오지만, 구역원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즐거웠던 추억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후 몸이 불편해 외출을 못하고 집에서 지내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건강하게 가족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두 딸에게서 손주를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큰 기쁨입니다.

손영자 막달레나

대학생 시절에 교수이셨던 아버지의 뜻으로 한국에서 자선사업을 하시던 영국 선교사(수산나)을 도와 당시 교육을 못 받은 여성들에게 한글, 산수, 양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분에게 감동을 받아, 그 분을 대모로 모시고 가족 중에 처음으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 형제, 자매가 모두 영세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신자였지만, 결혼하며 영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꼭 계시고, 제 마음을 다 내다보고 계심을, 제 말씀을 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노력하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기도를 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믿음으로, 삶을 돌아볼 때 무탈하게 살아오며 감사드립니다.



임문수 마르코

저는 가톨릭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때는 성인이 되어 스스로 교리를 배우고 하느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정립하여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오히려 유아세례를 받고 그 환경에서 자란 것이 더 큰 하느님의 은혜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성령 안에 살 세미나를 통한 하느님 체험입니다. 처절한 실망감과 낭패감으로 정말 혼란의 시간을 겪을 때, 정말 좋으신 하느님께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저로 하여금 바닥에서부터 다시 태어나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지금은 하느님의 뜻 안에 사는 것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있으며, 일상의 삶 모든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음을 늘 깊이 느끼지만 그래도 그러한 마음이 저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메타천 구역에는 누가 있나요?

| | |
|---------------------|--------------------|
| 김학남 요셉, 김복희 마리아 | 임문수 마르코, 임명희 마리스텔라 |
| 김희석 다니엘, 김금자 유리안나 | 최완준, 최혜자 헬레나 |
| 손종철 안드레아, 손영자 막달레나, | 허 중 미카엘, 허정 아나스타시아 |
| 손홍구 바오로, 손진희 클라라 | 황분숙 비비안나 |
| 이순재 마리아 | 황태진 필립보, 황옥자 데레사 |
| 이순분 바바라 | |



최혜자 헬레나

친정도 시댁도 신앙을 가진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2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장례미사에 갔을 때 이 친구가 천국에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톨릭 신앙을 가진 친구의 영향으로 그 때 부터 가톨릭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가톨릭 신앙을 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신앙을 가짐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됨이 감사합니다

허정 아나스타시아

감리교 재단 여고를 다니며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냉담을 하다가, 대학때 가톨릭 영세를 받았습니다. 이민 온 후 삶의 의미를 못 찾고 힘들어 하던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제가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안에서 저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깨달아 당신의 사랑과 은총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황분숙 비비안나

남편과 성당에서 혼배 미사를 하기위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민 오고나서 피정과 신심단체 각종 모임과 행사 등으로 교회공동체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을 키우며 사랑받고 보람된 날들을 보낸 것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큰아들이 청년회 디렉터로 아이들은 미사사회, 독서, 복사, 등을 하며 가족모두가 성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황태진 필립보, 황옥자 데레사

90년도에 신앙을 가지고 싶어서 부부가 함께 영세를 받았습니다. 아침 식사전에 늘 부부가 함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련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지 하는 한 마음과 성당일에 잘 협조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미사를 마칩니다. "이 신앙을 안가졌더라면 어땠겠노..."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2022년
6월 2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00AM~3:0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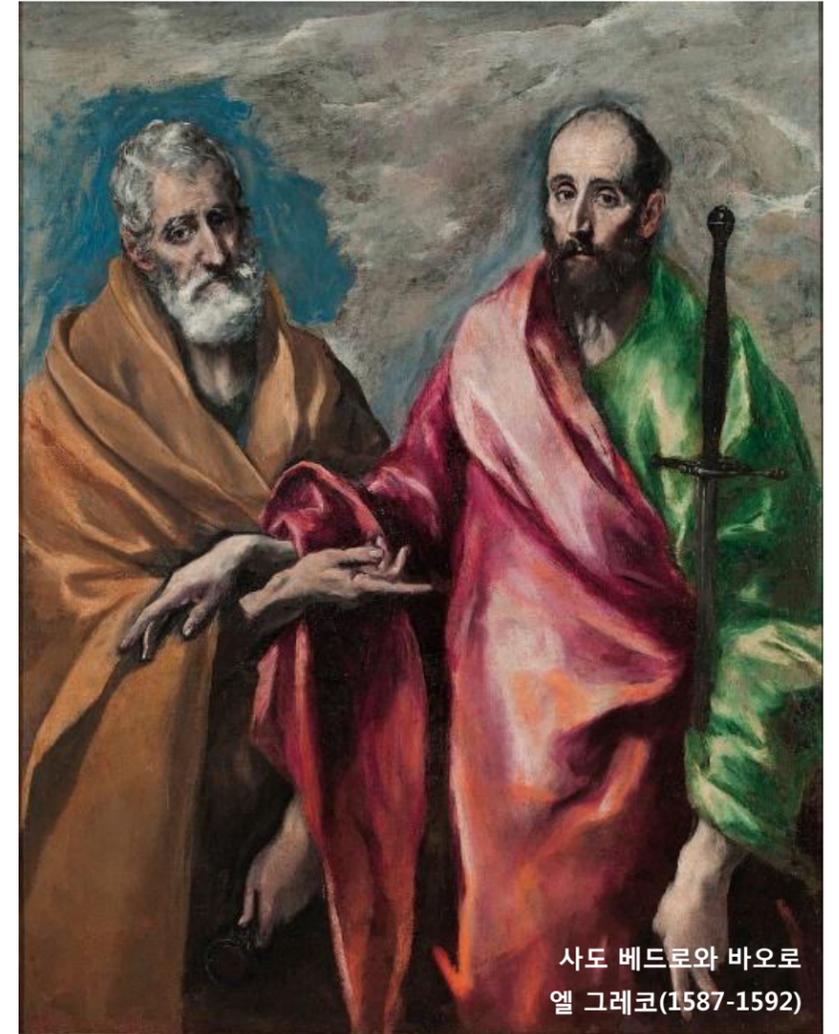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엘 그레코(1587-1592)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열왕기 상권 19,16-19-21
- # 화답송 시편 16(15),1-2과 5,7-8,9-10,11(◎ 5-7 참조)
◎ 주님, 당신은 제 목의 유산이시옵니다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5,1,13-18
- # 복음 환호송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 # 복음 루카 9,51-62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혔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 # 성가번호 입당 44 봉헌215 성체 156 파견39

미사지향 (연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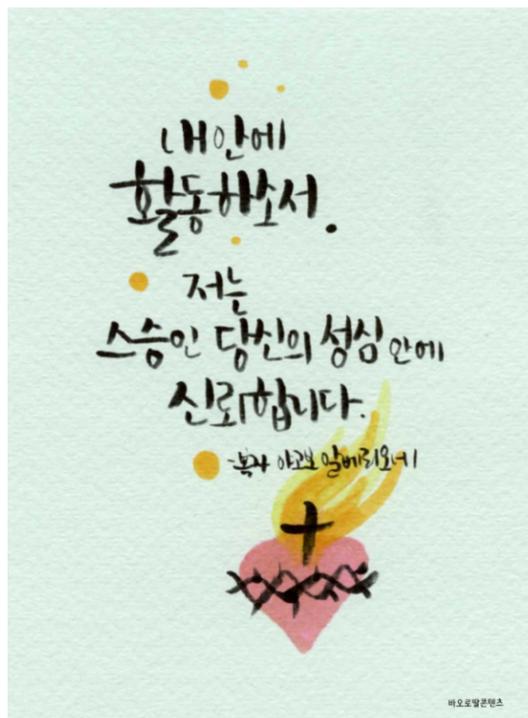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오옥순(수산나) - 가족, 이대우(베드로), 전 글라라
- 이영훈(바오로) - 이정배(마크리나)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홍순(카타리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 이성현 - 이재구(프란치스코)
- 최준혁 - 가족
- 노광식 - 손 유스티노
- 손정호 - 가족
- 채병익(요셉), 유태순(마리아) - 채희백(바오로)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 전 글라라
- 오경선(원선시오), 오애희(올리아나) - 성 라파엘라
- 오용덕(헨리코), 오경숙(세실리아) - 배인경(미리암), 전 글라라
- 허기욱(바오로), 허정자(테레사) - 박재영(요아킴)
- 정영철(프란치스코) - 전 글라라
- 유근성(시몬) - 유희자(베로니카)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에디슨 구역, 전 글라라
- 김옥전 - 김태경(카타리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40명).....\$1,763
- 2차 헌금\$494
- 교무금.....\$850
- 허기욱(7-12) 이기순(1-6) 서경호(5-6) 한상철(6)



6월 부터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성월기도와

삼종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성당 입구에서 성가책을 받으시어 미사 중 함께 성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모회 주관 테네시 농장 농산물 판매

- 주문 마감 : 6월 26일 (주일)
- 물품 수령일 : 7월 10일 (주일) 미사 전후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반석회 사제와의 대화

- 일시 : 6월 30일(목) 오후 1시
- 장소: 친교실

• 주제: 각자의 신앙생활에 관련한 모든 사항
• 신부님과 자유로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 7월 3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7월 10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매일미사 구독 신청(2022년 8월-2023년 7월)

- 일반 매일미사 책 \$66, 대형 매일미사책 \$102
- 7월 3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Bishop's Annual Appeal

•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 \$35,000을 달성하였습니다. 6/13까지 약정금액은 \$43,024 (목표금액의 122.9%, 132가정 참여)입니다. 목표금액 달성 후 초과금액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과 함께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16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St. Francis of Assisi메타천 주교좌 성당
- 온라인 등록 마감: 2022년 10월 7일 (금)
- 온라인 등록: <http://www.diometuchen.org/silver-and-gold-anniversary-celebration>
- 연락처: 732-562-1543, amarshall@diometuchen.org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제 1독서 열왕기 상권19,16L.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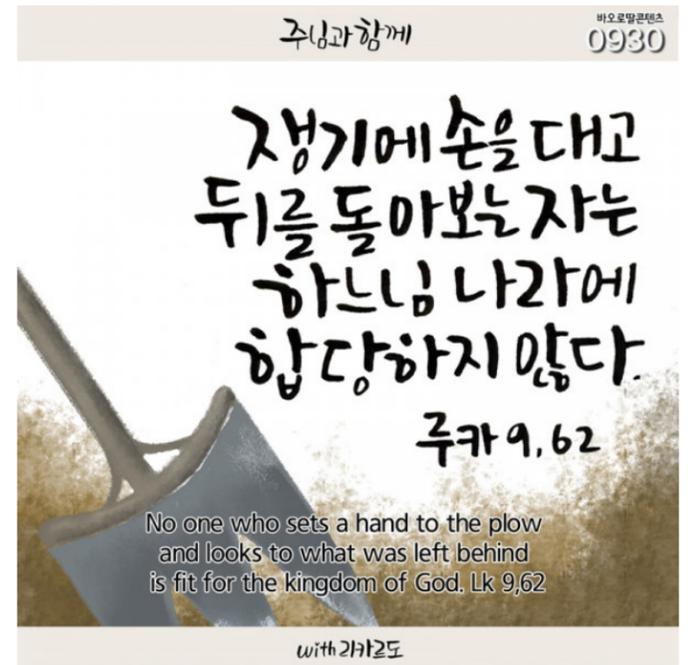
그 무렵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아벨 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열두 번째 겨릿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겹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나서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5,1.13-18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9,51-62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별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굶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